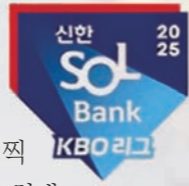


FA 두 번 125억... '눈물밥' 박해민의 인간승리



LG 선두타자 박해민이 지난달 6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한화 이글스 대 LG 트윈스 1차전 경기 5회말에 솔로 홈런을 날린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박해민(35·LG 트윈스)은 자유계약선수(FA)로 첫 번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2021년 12월(4년 최대 60억 원)보다 올해 11월 더 좋은 조건으로 FA 잔류 계약(4년 최대 65억 원)을 했다.



대졸에, 육성선수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과거를 떠올리면 이번 계약이 더 놀랍다. 더구나 이번에 LG와 FA 잔류 계약을 할 때는, 더 높은 액수를 제시한 구단의 영입 제의를 정중하게 고사했다.

박해민은 "1군에서 뛰는 게 목표였던 시절도 있었다. 그때는 FA 계약을 두 번이나 하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며 "나보다 나를 더 높게 평가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해민은 신인고를 졸업할 때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해 한양대로 진학했다.

4년 최대 65억... LG 잔류 도장 꼭 2021년 첫 FA 계약 60억 뛰어넘어 고교 졸업 후 프로 못가고 한양대 드래프트 못받고 삼성 육성 선수로 LG와선 4년간 한 번도 결장 안해 통산 460도루 현역 1위 맹활약 중

한양대 4학년 때도 드래프트에서 지명 받지 못해 2012년 삼성 라이온즈와 육성 선수 계약을 했다. 2013년 1군에서 단 1경기만 박해민은 2014년 뛰어난 수비와 빠른 발을 무기로 1군에 안착해 119경기에 출전했다. 2014년에 92안타를 친 박해민은 목표를 '100안타로 높였고, 2015년에 154안타를 쳤다. 2018년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2021년 도쿄 올림픽,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뤘다. 공수에서 몸을 날리는 박해민은 작은 통통은 참고 땀. 인내력이 좋고 승리욕도 넘치는 박해민은 LG에서 4년(2022~2025년) 동안 단 한 경기도 결장하지 않았다. 박해민은 "경기 출전 여부는 감독님이 정하신다. 나는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몸을 만들고 대기한다"며 "경기 출장이 목표였던 시절이 생생하다. '오랫동안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는 게 남은 목표'라고 말했다.

4년 계약을 하면서 '도루 기록'에 도전할 충분한 시간도 얻었다. 박해민은 올해 49도루로 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통산 5번째 도루왕에 오른 박해민은 김일권이 보유한 KBO리그 최다 기록(5회)과 타이틀을 이뤘다. 박해민의 통산 도루 460개를 성공해 이 부문 현역 1위, 전체 5위다. 전준호의 KBO 통산 최다 도루 기록

(549개)에도 89개 차로 다가섰다. KBO리그 최장인 12년 연속 20도루를 기록한 박해민은 "12시즌이 끝이 아닌, 연속 시즌 20도루를 정말 깨기 어려운 기록으로 늘려나가고 싶다"며 "통산 도루 기록을 꼭 경신하고 싶다"고 했다.

누를 자주 밟아야 도루 기회도 온다. 박해민은 올해 출루율 0.379로 이 부문 15위에 올랐다.

그는 "흥창기처럼 선구안을 타고난 타자가 있다. 나는 노력으로 선구안을 키우고 있다"며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하거나 살짝 벗어나는 공을 반복해서 보면서 '볼이 되는 공을 골라내는 빈도가 늘었고 출루율도 올랐다"고 했다.

박해민은 FA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고졸 신인보다 4년 늦게 프로 생활을 시작하는 대졸 선수들에게 '두 번의 FA 계약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안겼다.

연합뉴스

원맨쇼 손흥민... 승부차기서 아뿔싸!

손흥민(LAFC 사진)이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플레이오프(PO)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에서 멀티골을 폭발하며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으나 승부차기에서 실축하며 팀의 탈락을 막지 못했다.



손흥민은 23일(한국 시간) 캐나다 밴쿠버의 BC플레이스에서 열린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2025 MLS 컵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전에서 2골을 터뜨렸다.

팀이 0-2로 밀리던 후반 15분 반회골을 넣은 데 이어 1-2로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시간 찬금 같은 프리킥 동점골을 작렬했다. 올해 8월부터 LAFC 유니폼을 입고 MLS

에서 뛰 손흥민의 11:2번째 득점포였다. 손흥민은 1골 1도움을 올렸던 3월 오스틴과의 PO 1라운드 2차전에 이어 소속팀에서 2경기 연속 골 맛을 봤다.

9월 말 세인트루이스와의 정규리그 경기 이후 약 2개월 만에 멀티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MLS에서 이번 시즌 12골 4도움을 남겼다. LAFC는 손흥민의 맹활약에 힘입어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으나 이후 추가골은 넣지 못한 채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3-4로 져 그대로 시즌을 마쳤다.

MLS는 30개 구단이 동-서부 콘퍼런스로 나눠 정규리그를 치른 뒤 콘퍼런스별 8개 팀이 PO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콘퍼런스 8강'에 해당하는 1라운드는 3전 2승제로 진행됐고, 콘퍼런스 준결승과 결승, 챔피언결정전은 모두 단판 승부다. LAFC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3위에 오른 뒤 PO 1라운드에서 오스틴을 제압했으나 콘퍼런스 준결승에서 정규리그 2위 팀 밴쿠버의 벽에 막히고 말았다.



AP-연합뉴스

리그 1호골·PSG 3연승... 이강인의 날

A매치 기간 흥명보호의 2연승에 힘을 보태고 소속팀으로 돌아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하 PSG-사진)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에서 시즌 첫 득점포를 가동했다.



AP-연합뉴스

이강인은 23일(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리는 리아브르와의 2025-2026 리그1 13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29분 0의 균형을 깨뜨리는 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강인의 골이다.

8월14일 토트넘(잉글랜드)과의 유럽 축구연맹(UEFA) 슈퍼컵에서 골 맛을 봤던 이강인은 리그 개막 이후엔 처음으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UEFA 슈퍼컵과 챔피언스리그에서의 1골 1도움을

포함해 이번 시즌 이강인의 공식전 전체 공격 포인트는 2골 2도움이 됐다. 이강인의 결승골 덕에 PSG는 리아브르를 3-0으로 제압, 7경기 무패(승 4, 무 3)를 달리며 리그1 선두(승점 30)를 지켰다.

연합뉴스



김소형 원방 좋은당黨

국내산 원료로 만든 건강한 여주진액, 정성껏 담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유기농 여주 100%

인증번호: 제 13100551 호

인증서
인증구분: 유기농산물

유통기한: 2023.9.5 - 2024.9.4

매일! 챙기는 한 포의 루틴!
중·장년층에게도 꼭 맞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위한 작은 습관

유기농 여주 (국내산)

중·장년이라면 하루 한 포!
김소형 원방 좋은당 (80ml X30포)
일체의 화학 첨가물을 없이 100% 천연재료 사용. HACCP 인증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제조원: (주)엔트리 / 경상남도 양산시 외산1길 30 유통전문매원(주)윗이랑 /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2길 1 남신빌딩 4층

생활 활력의 시작!
김소형 원방 좋은당으로 함께하세요!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몸!
김소형 원방 좋은당으로 느껴보세요!

김소형 원방 좋은당 여주진액은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여주에서 유래한 유기농 여주만을 100% 담아냈습니다.

드시고 싶은 다양한 음식들, 김소형 원방 좋은당 여주진액 하루 한 포면 모두 OK!
그 외에 여주와 궁합이 잘 맞는 9가지 원료를 함유!

돼지감자 (국내산)

바나바

매일 한 포, 활기찬 하루의 시작!

100% 국내산 유기농 여주, 돼지감자, 구지뽕, 바나바를 조화롭게 배합

신중하게 선별한 원료를 조화롭게 배합하고, 세심한 과정을 거쳐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김소형 한의원(원장)

김소형 원방 좋은당과 함께하시면 좋은 분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챙기고 싶은 분 / 달콤한 음식을 즐기시는 분 / 회식이 잦은 직장인 / 한식을 즐기시는 분 / 활동량이 적은 부모님 / 건강한 하루 루틴을 만들고 싶은 모든 분들

1박스 59,800원	▶ 49,800원
2박스 99,600원	▶ 79,800원
4박스 199,200원	▶ 148,000원
8박스 398,400원	▶ 269,000원

행사기간: 2025년 12월 31일 까지

1588-3398

농협: 301-0253-2226-11 주식회사 윗이랑
무료배송 | 신용카드 | 무이자 할부혜택